

<서평>

Biblical Translation in Context

(Frederick W. Knobloch, ed.,

Studies and Texts in Jewish History and Culture 10,
Bethesda: University of Maryland Press, 2002)

김구원*

1. 들어가는 말

이 책은 1998년 미국 메릴랜드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USA)에서 열린 ‘Biblical Translation in Context’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¹⁾ 이 책의 제목도 그 학술회의의 주제와 일치한다. 이 책에는 모두 13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발표자/기고자들은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New American Bible 개정역, Chicago Bible Translation, New Living Translation, New Century Version 등 모두 다양한 번역 사업에 참여한 인물들로 구성된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이 다루는 주제는 칠십인역, 타르굼,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몽골어 성경 등 다양하며,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번역 성경들을 통해 성경 번역 작업의 본질과 실제에 대해 탐구한다. 이 책은 여러 다양한 저자에 의한 논문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일관되게 노정한다. 그것은 성경 번역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매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번역자들은 자신의 학문, 문화, 경제, 정치, 종교적 ‘편견’ 속에서 활동한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번역 성경이 종파적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제작되었

* University of Chicago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단국대학교 사학과 강사.
koowonkim@yahoo.com

1) 이 학술회의의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orion.mscc.huji.ac.il/orion/archives/1998a/msg00300.html> (2022. 1. 27.).

다는 점은 이를 잘 증명한다. 이런 점에서 번역은 성경 해석 혹은 주석의 가장 단순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번역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번역 성경이 제작되는 원리, 과정, 그 결과물을 살핌으로써, 성경 번역에 들어간 다양한 영향들에 대해 인지(認知)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된다. “전신들: 고대 세계의 성경(Precedents: The Bible in the Ancient World)”이라는 부제의 제1부에서는 최초의 번역 성경인 칠십인역과 관련된 두 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2부 “성경과 공동체: 유대교와 기독교 성경들(Scripture and Community: Jewish Bibles, Christian Bibles)”에는 모두 8편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논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제작된 번역 성경들에 대한 사례 연구들이다. 마지막 제3부는 “교실에서 성경: 모사적 번역과 문예적 접근”(The Bible in the Classroom: Mimetic Translation and the Literary Approach)이라는 부제가 암시하듯이, 종파적 ‘편견’을 제거한 학술적 목적의 성경 번역의 노력들을 다룬다. 흥미로운 것은 ‘교실용 성경’ 즉 학자들과 학생들을 위한 성경 번역은 시도된 적은 있으나 한 번도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13장에서 마이클 폭스(Michael V. Fox)가 한때 참여했던 시카고성경번역 프로젝트가 그런 시도였지만 실제 출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었다. 이 책이 유대학 연구소(The Joseph and Rebecca Myerhoff Center for Jewish Studies)의 후원으로 기획된 것인지 모르지만, 신약 본문의 번역이 다루어지지 않았고 상당수의 논문이 유대인들의 번역 성경에 할애되었으며, 또한 기독교인들에 의한 번역에 대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어지는 서평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책에 수록된 13편의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여, 성경 번역의 본질과 실제에 관심 있는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있다. 물론 모든 논문이 동일한 분량으로 소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에 한국 독자에게 보다 중요하다 생각되는 논문은 비평가 함께 좀 더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2. 제1부 전신들: 고대 세계의 성경

1장에서 벤자민 라이트(Benjamin G. Wright III, 리하이 대학교)는 주전 3세기경 히브리어 성경을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한 칠십인역의 역자들이 어떤 번역 모델을 사용했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저자가 택한 방식은 기

존 가설의 타당성을 페르세우스 디지털 도서관에서²⁾ 얻은 문서 자료들로 시험하는 것이다. 비커만(E. Bickerman), 라빈(C. Rabin), 브록(S. Brock) 등에 의해 제안된 후 널리 퍼진 기존 가설에 따르면 칠십인역의 번역가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헤르메네우스’(hermenēus)들의 통번역을 모델로 삼았다. 헤르메네우스들은 그리스어를 모르는 이집트인들을 위해 프톨레마이우스 정부의 공문서 혹은 상거래 문서 등을 즉석에서 번역해 준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들은 원문의 문법과 구문을 그대로 대상 언어(target language)에 반영하는 문자적 번역을 했다는 것이 가설의 골자이다(4-7쪽). 이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논문 저자는 ‘헤르메네우스’가 등장하는 문서들을 검색해 그 용례들을 하나씩 살펴간다. 이에 따르면, 주전 5-4세기의 그리스 저자들은 ‘헤르메네우스’를 신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 법률가, 시인, 통역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했다. 하지만 고대 근동으로 여행한 경험이 있는 헤로도투스나 크세노폰의 글에서는 통역가의 용례가 더 지배적이 된다. 한편, 3-2세기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문서들 가운데 9개가 ‘헤르메네우스’를 언급한다. 이 중 7개는 헤르메네우스를 언급하지만 할 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문서(PSI 4.332, I)는 ‘헤르메네우스’가 그리스인과 이집트인 사이에 통역과 중계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테베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문서에 따르면, 아폴로니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헤르메네우스’는 글자를 몰랐다는 언급이 있다(UPZ 2. 227, I). 그가 문서를 작성해야 할 때는 대필을 시켰다고 한다. 저자는 실제 번역된 문서들도 검토하는데, 번역의 질은 일관되지 않다고 한다. 논문 저자에 따르면, 들쭉날쭉한 그리스어의 수준이 통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필경가의 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처럼 논문의 대부분은 ‘헤르메네우스’가 등장하는 문서들에 대한 관찰에 할애된다. 라이트는 결론에서 ‘헤르메네우스’로 불린 통역가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그들이 어떤 번역 기법을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가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역가들이 알렉산드리아에 편만했으며 손님 곁에 서서 정부 공문서나 상거래 문서를 문장 단위로 통번역해 준 자라는 주장은 신화에 가깝다(16-17쪽). 유대인 회당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통역하는 이미지에서 유래한 환상처럼 보인다. 저자는 칠십인역 성경 번역가들이 아무도 안 간 길을 간 사람

2) <http://www.perseus.tufts.edu/hopper>

들이라고 말한다. 당시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유대인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창조적으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주장한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종교 문서 중 그리스어로 번역된 최초의 것이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사실을 덧붙인다. 이 논문은 가설을 실제 데이터로 검증하는 형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과학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실험 데이터와 달리 인문학의 데이터는 언제나 “현전하는” 데이터라는 한계가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문서, 문서에 반영되지 않는 용례 등이 존재할 수 있다. 헤르메네우스에 대한 기존 가설이 현전하는 자료들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일 수 있지만, 칠십인역 번역가들의 작업이 전례 없이 독창적이었다는 것도 기존 가설만큼이나 가설적인 듯하다.

2장에서 윌리엄 아들러(William Adler,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는 칠십인역 다니엘서의 일부인 ‘수산나 이야기’에 대한 정경성 논쟁을 정리한다. 이 작업을 통해 논문 저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와의 경쟁 관계 때문에, 즉 정치적 이유 때문에, 스스로 번역한 칠십인역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오해를 해소하려 한다. 수산나 이야기의 정경성에 대한 논쟁은 명망 있는 평신도였던 아프리카누스(Sextus Julius Africanus)가 오리게네스(Origen of Alexandria)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작한다. 그는 오리게네스가 바소스(Bassos)와의 논쟁에서 수산나 이야기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 수산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일부가 될 수 없는 위작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그 편지에서 아프리카누스는 그리스인들의 문학 비평 방법을 사용해 수산나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다른 본문과 달리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본문이 아니라 본래 그리스어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 수산나를 장로들 앞에서 변호하는 다니엘의 말 속에 사용된 언어유희를 지적한다. 즉 다니엘이 사용한 네 개의 그리스어 ‘상록수’(πρίνον, 프리논), ‘튼튼하다’(πίσειν, 프리세인), ‘유향나무’(σχινον, 스키논), ‘갈기갈기 찢어지다’(σχιοθηναί, 스키스테나이)는 서로에 대한 언어유희를 통해 수사적 효과를 내는데, 이것은 수산나 이야기 본문이 본래 그리스어로 작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유대인의 다니엘서에는 수산나 이야기가 없다는 점을 덧붙인다.

이 편지는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명망 있는 평신도인 아프리카누스가 이방인들의 문학 비평 방법을 이용해 교회가 지금까지 다니엘서의 일부로 인정해 온 수산나 이야기를 폄하했기 때문이다. 이에 알렉산드리아의 최고 신학자인 오리게네스가 반박에 나선다. 오리게네스는 전문 학자답게 아프리카누스의 주장의 빈틈을 파고 들어간다. 먼저, 오리게네스는 아프리카누스가 히브리어를 몰랐음을 간파하고, 수산나 이야기에 사용된 언어유희의 문제에 대해 동일한 언어유희가 히브리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언

급한다. 또한 수산나 이야기의 문체가 다니엘서의 다른 부분에 사용된 문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대인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수산나 이야기가 없다는 점에 대해 논할 때, 오리게네스는 조금 다른 전략을 택한다. 그에게 수산나 이야기가 위작인지의 문제는 순수히 ‘학문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 오리게네스는 아프리카누스가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너무 학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치적’이 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수산나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제외하면 기독교 교회가 유대교에 종속될 것이라고 말한다(29쪽). 논쟁의 방향을 문학 비평에서 교회 정치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수산나 이야기가 유대 장로들을 부정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니엘서에서 제거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히브리어 성경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한 결과물이라는 일종의 음모론까지 주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논쟁에 유대인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산나 이야기의 정경성에 대한 유대인의 입장은 제롬의 다니엘서 서문에 처음 제시된다. 제롬은 히브리어 성경이 유대인들에 의해 오염되어서 기독교 교회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오리겐의 주장을 배격한다. 제롬은 유대인 학자를 찾아가 수산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그것은 수산나 이야기에서 유대 장로들이 나쁘게 그려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체와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누스가 오리겐에게 말한 것처럼, 그 유대인 학자도 수산나 이야기에 사용된 언어 유희가 그리스어 본문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에서 흥미로운 것은 칠십인역과 히브리어 성경의 관계에 대한 논쟁의 다이내믹이다. 언제나 증명의 부담은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외경을 포함하는 칠십인역을 수용한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있었다.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의 논쟁에 유대인들은 굳이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제롬이 알려준 것처럼, 요청을 받으면 마지못해 응하곤 했다. 이들의 대답은 음모론이나 정치적 설명이 아니라 언제나 내용과 문체에 근거한 것이다. 논문 저자는 유대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즉 기독교인들이 칠십인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폄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3. 제2부 성경과 공동체: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들

유대교와 기독교가 모두 그 권위를 인정한 칠십인역을 다룬 제1부와 달리

제2부는 비교적 근대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번역 성경들을 다루는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3장에서는 프레데릭 그린스판(Frederick E. Greenspahn, 덴버 대학교)이 유대교 번역 성경들의 일반 특징들을 구체적 예들을 들어가며 서술한다. 그린스판에 따르면 유대교 번역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히브리어 본문에 충실하려는 태도이고 또 하나는 번역이 유대의 해석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 마소라 본문만 유일한 대본(Vorlage)으로 인정하는 것, 어원적 번역, 히브리어 소리나 구문을 모사하는 번역 등이 있다. 좀 더 상술하면 부버(M. Buber)와 로젠츠바이크(F. Rosenzweig)는 ‘미즈베하’(מִזְבֵּחַ, 제단)을 그 어원의 의미가 드러나게 “slaughter site”로 번역한다. 이디시 성경에서 복합 전치사 ‘미프네이’(מִפְּנֵי)를 “von vor”로 번역한 것도 어원적 번역이라 할 수 있다. 히르쉬(Hirsh)의 번역에서는 인명이나 지명을 번역할 때 전통적인 철자법 대신 최대한 히브리어 소리를 모사하는 철자법을 사용한다: 모세의 경우, Mose 대신 Moscheh로 표기한다. 히브리어 구문을 모사하는 번역의 예로는 이디시 성경에서 ‘바요페르 엘로힘(בַּיּוֹפֶר אֱלֹהִים)’을 번역할 때 “un er sagt got”로 번역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동사의 주어가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장의 경우에도 동사에 포함된 주어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해, 주어가 두 개인 문장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렇듯 히브리어 본문에 충실한 번역인 유대인 성경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 왔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성경 본문의 영적 의미보다 문자에 집착한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논문 저자에 따르면 이런 비난은 공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히브리어 본문에 충실한 번역을 추구했던 배경에는 유대적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대인 번역 성경에 유대인의 전통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약 성경의 책들을 칠십인역의 순서가 아니라 유대인 전통에 따라 배열했다는 것(토라, 예언서, 성문서)이다. 19세기에 나온 유대인 성경은 “24권의 책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기도 했다. 이것도 구약을 39권으로 계수하는 기독교 전통과 차별되는 것이다. 또한 부버와 로젠츠바이크의 성경은 장절이 아닌 회당의 낭독 주기에 맞춘 문단 별(Parshah)로 성경을 편집했다.

유대 전통은 번역의 내용에도 반영된다. 먼저 기독교적인 특징이 현저한 번역어를 제거한다. 예를 들어, 이사야 7장 14절의 ‘알마(עַלְמָה)’를 “처녀” 대신 “젊은 여자”로 번역한다. 또한 번역의 근거를 제시할 때도 기독교 자료가 아니라 유대인 자료만을 인용한다. 멘델스존(M. Mendelssohn)은 하나

님의 이름을 “der Ewige”로 번역하면서 기독교 위경이나 칼빈의 글은 무시하고, 유대인 중세 주석가들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심지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매우 현대적인 번역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할 때에 …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의 근거를 제시할 때도, 현대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아닌 중세 유대인 학자 라쉬(Rashi)를 인용한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성경은 유대인의 율법인 할라카(Halaka)와 조화되게 번역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타르굼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할라카의 근거를 타르굼에서 찾는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외에도 유대인 영웅들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제거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인동형론적 표현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도 유대인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이상의 예로 볼 때 성경 번역이 성경 본문에 대한 중립적 번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유대인의 번역은 철저히 유대적이며, 그것을 노골적으로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전통과 정체성을 보존하는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4장에서 스티븐 파인(Steven Fine, 신시내티대학교)은 비잔틴 시대의 유대인 번역인 타르굼 네오피티(Targum Neofiti)와 위요나단(Targum Pseudo-Jonathan)에서 회당과 학교에 관한 주제가 어떻게 강조되는지를 살핀다. 회당과 학교는 비잔틴 시대의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기관이었다. 그 당시 가장 이상적인 유대인은 회당에서 예배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 랍비이다. 당연히 오경의 배경인 족장 시대와 모세 시대에 회당이나 학교가 있었을 까닭이 없다. 하지만 오경에 대한 타르굼 번역들에는 이스라엘의 위인들이 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즉 비잔틴 시대에 번역된 유대인 성경 타르굼에 비잔틴 유대교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타르굼 네오피티와 위요나단에 따르면 오경의 영웅들, 노아의 아들 셈,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과 아들들, 모세와 여호수아 등은 말씀 학교(study house) 중심의 삶을 살았다. 창세기 9장 27절에 대한 타르굼 네오피티와 위요나단의 번역에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는 히브리어 본문이 야벳이 유대교로 개종하여 셈의 말씀 학교 안에 거하게 될 것으로 번역된다. 즉 “거한다”는 히브리어 동사가 “개종하여 거한다”는 두 개의 아람어 동사로 번역된 것이다. 또한 “장막”이라는 히브리어 명사가 “말씀 학교”로 번역된 것이다. 이것은 이 번역서가 만들어진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비잔틴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함을 의미했다. “셈의 장막”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유

대인 정체성의 중심지를 의미한다. 비잔틴 시대의 타르굼에는 이삭과 야곱도 셈의 말씀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언급이 나온다. 창세기 22장 19절에 대한 타르굼 위요나단의 번역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홀로 하산했을 때, “천사가 이삭을 높이 들어 위대한 셈(Shem the Great)의 말씀 학교로 데려갔다. 그는 그곳에서 삼 년을 거했다.” 이런 첨가적 번역은 히브리어 본문의 해석적 틈에 따른 것이다. 즉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홀로 내려왔다. 이삭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24장 62절에 대한 타르굼 번역에서도 “셈의 말씀 학교”가 해석적 이유로 첨가된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삭이 브엘라해로이 근처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 그가 어디로부터 돌아왔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타르굼 번역가들은 “이삭이 위대한 셈의 말씀 학교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첨가한다. 즉 이삭은 모리아 사건 이후, 비잔틴 시대의 위대한 랍비들처럼, 셈의 말씀 학교에서 유학한 것이다.

타르굼에서 야곱과 말씀 학교의 관계는 특별하다. 그는 어릴 적에는 셈의 말씀 학교에서 수학하지만 장성한 후에는 자신의 말씀 학교를 세운다. 리브가가 뱃속의 두 아들이 싸울 때 그들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러 가는 장면이 창세기 25장 22절에 나온다. 타르굼 네오피티의 번역에 따르면 그녀가 여호와께 묻기 위해 간 곳이 “셈의 말씀 학교”이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말씀학교에 다닌 것이다. 또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소개되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타르굼 번역은 “장막에 거주했다”는 부분을 “말씀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번역한다. 이런 번역은 “조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온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탐(טָם)’이라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번역가들이 야곱이 온전하게 된 이유를 비잔틴 시대의 세계관에 따라 그가 말씀 학교에서 훈련한 이유라고 생각한 것이다. 창세기 33장 17절은 단순히 야곱이 숙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말하지만, 타르굼 위요나단은 “말씀 학교를 지었다”고 번역한다. 이로서 타르굼에 의해 그려진 야곱은 리브가의 태 속에서 말씀 학교를 다녔고, 어릴 적 말씀 학교에서 수학했고, 어른이 된 후에는 말씀 학교를 설립한 비잔틴 시대의 이상적 랍비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외에 타르굼은 이드로, 모세, 여호수아도 모두 말씀 학교에서 수학한 것으로 그린다. 논문 저자가 이렇게 오경에 대한 타르굼 번역에서 “말씀 학교”에 대한 언급을 추적한 이유는 타르굼 번역이 회당의 산물이라는 의견에 수정을 가하기 위해서다. 말씀 학교는 예배의 중심지였던 회당과 달리 랍비들이 모여 말씀은 연구한 곳인데, 오경의 영웅들이 타르굼 번역에서 말씀 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은 타르굼 번역이 회당뿐 아

나라 학교에서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5장에서 아비가일 길만(Abigail E. Gillman, 보스턴대학교)은 18-20세기 초 유대인에 의해 번역된 독일어 성경 중 상극에 위치한 멘델스존의 <평화의 도의 책>(Sefer Netivot ha-shalom, 1780-1783)과 부버와 로젠츠바이크의 <다섯 권의 가르침의 책>(Die fünf Bücher der Weisung, 1925-1929)을 비교, 대조한다. 이 두 독일어 성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핵심어는 “맥락적 번역(translation in context)”이다. 매우 다른 역사적 상황과 철학적 전제 아래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들은 모두 문맥을 ‘주어진 것’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즉 그들의 ‘비전’이 성경 번역에 대한 맥락을 형성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비전을 번역의 맥락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 그 두 독일어 성경은 다른 길을 간다.

멘델스존이 자신의 번역 성경을 기획할 때 유대인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게토(ghetto)’적 생활을 청산하고 독일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위한 기지개를 켜는 중이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대인을 위한 새로운 성경 번역이다. 기존의 번역은 기독교인들의 번역이거나 이디시어로 된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번역은 좋은 독일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 충실하지 않았고, 이디시어 성경은 유대인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통해 좋은 독일어를 경험하는 기회를 빼앗았다. 멘델스존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서 유대인 자녀들이 독일 주류 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돕는 비전을 그의 새로운 번역 성경을 통해 실현하려 한다. 멘델스존의 번역 성경은 먼저 중세 랍비 성경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했다. 즉 오른쪽 상단의 작은 공간에 성경 본문을 배치하고 독일어 번역을 상단 왼쪽에 수록한다. 중세 랍비 성경처럼, 페이지의 나머지 공간들은 멘델스존과 그 제자들의 주석으로 채워진다.³⁾ 즉 성경 본문 아래 본문에 대한 ‘토론’이 들어간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성경 본문에 대한 대화임을 보여준다. 멘델스존은 중세 랍비 성경의 레이아웃을 채택함으로써 구전 전통에 대한 형식을 유지했지만, 그 내용만은 모두 바꾼 것이다. 즉 아랍어 번역 대신, 독일어 번역이 들어 있고, 또한 라쉬의 주석 대신 멘델스존의 주석이 들어 있다. 또한 독일어 번역도 비록 로마자가 아니라 히브리어 문자로 표기되었지만 그 독일어 번역 자체는 어색한 문자 번역이 아니라, 당시 주류 독일어의 속어

3) 해당 책의 102-103쪽에 중세 랍비 성경(Miqraot Gedolot)과 멘델스존의 번역 성경의 페이지 레이아웃이 수록되어 있다. 후자가 독일어 번역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지가 모두 히브리어 문자로 가득 차 있음은 놀라운 일이다. 독일어 번역이 히브리어 문자로 표기되었다.

를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필요하다면 번역 노트를 괄호 안에 포함하여 독자들의 본문 이해를 도왔다. 이런 번역 노트와 주석을 동반한 독일어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은 멘델스존이 기획한 계몽적 유대 문화에 접하게 된다.

한편, 부버와 로젠츠바이크가 번역을 기획한 20세기 초에는 유대인들의 정체성 회복 운동이 왕성할 때이다. 즉 지난 200년 간 계몽주의적 유대교가 그 수명을 다해 새로운 형태의 유대교 운동이 요청되던 때였다. 멘델스존이 문화의 변방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적 계몽의 비전을 제시하려 했다면, 부버와 로젠츠바이크는 지나치게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원했다. 그들의 번역 성경에는 번역 노트나 주석이 없다. 독일어 번역 본문이 페이지 중앙에 배치된다. 번역은 때때로 위화감을 조성할 정도로 매우 문자적이다. 심지어 부버와 로젠츠바이크는 번역의 서문도 쓰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에 본문 이외의 다른 요소를 첨가하는 것이 독자들과 하나님과의 직접적 소통(I and Thou relationship)을 방해한다고 여겼다. 번역자들의 이런 비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번역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멘델스존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Der Ewige)으로 번역하지만, 부버와 로젠츠바이크는 그런 신명(神名)은 성경 인물들이 체험한 현존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한 신명 대신 독일어 대명사 ICH(the speaker), ER(the one spoken to), IHM(the one spoken of)을 사용한다.⁴⁾ 즉 하나님은 말씀하는 자, 혹은 우리가 향하여 기도/예배하는 자, 혹은 실존적 존재/사건으로 체험된다. 부버와 로젠츠바이크의 시대는 유대인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였다. 이들은 문화적 주류가 되기보다, 스스로 영적 ‘소수자’가 되는 길을 택한다. 그들이 제작한 번역 성경은 이런 그들의 비전을 반영한 것이다.

6장에서 레오나드 그린스푼(Leonard Greenspoon, 크레이튼 대학교)은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유대인에 의해 출판된 영어 성경을 마케팅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판매는 번역과 관계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논문 저자는 성경 번역이 본문과 ‘컨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면, 판매는 그 상호작용의 일환이라고 말한다(116쪽). 심지어 최초의 번역 성경인 칠십인역도 어떤 의미에서 ‘마케팅’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칠십인역의 번역 과정을 상술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The Letters of Aristeas)가 이를 잘 보여주는 데, 그것은 번역자들의 도덕성과 학문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번역이 가장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본을 대본으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그린스푼에 따르

4) 독일어 대명사가 모두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음에 유의하라.

면 이런 정보들은 오늘날 마케팅의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는 칠십인역의 ‘판매’에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면, 18-20세기 초까지 유대인들에 의해 출판된 영어 성경은 스스로를 어떻게 마케팅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마케팅 전략은 ‘밴드 왜건(bandwagon)’ 효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그 번역 성경에 그것을 후원하는 유명인들의 이름을 표기하거나, 그들의 추천서를 간단하게 수록함으로써 사람들의 구매를 자극했다. 번역자가 누구인지도 마케팅에 중요했다. 이 때문에 표지에 번역자의 양력이 수록되기도 한다. 1851년에 출판된 베니쉬(A. Benish)의 번역 성경에는 5줄에 걸쳐 번역자의 양력이 나열된다(122쪽). 이외에도 유대인들에게 번역 성경을 어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세한 배려도 활용되었다. 표지에 영어와 히브리어를 혼용하기, 번역이 참고한 유대인 주석을 밝히기, 출판 연도를 서기 연도(AD)가 아니라 창세 연도(AM)로 표기하기, 유명 랍비의 추천사 수록 등이다. 판매를 위해 속임수가 사용되기도 했다. 번역가가 개종한 유대인인 경우, 개종한 사실을 숨긴다거나, 기존 번역의 수정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번역인 것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유명한 예는 1917년에 유대인출판협회(Jewish Publication Society)에서 출판한 영어 성경이다. 이것은 제임스왕역을 수정한 기독교 성경의 개정역에 불과하지만, 유대인출판협회는 이 사실을 서문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판매를 위해서라면 성경을 출판하는 주체가 언제나 정직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7장에 수록된 아델 베를린(Adele Berlin, 메릴랜드 대학교)의 논문은 특정 번역을 논하는 대신 번역 일반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주석으로서의 성격을 이야기한다. 베를린에 따르면 의미 전달이라는 점에서 번역과 주석은 본질적으로 같다. 물론 형식적 관점에서 주석은 본문에 대한 ‘메타-텍스트(meta-text, 텍스트와 별도로)’로 존재하는 반면 번역은 대체로 본문을 대체한다. 특히 히브리어를 모르는 독자들에게 번역은 곧 원문이 된다. 역사적으로 칠십인역, 불가타역, 제임스왕역 등은 특정 독자들에게 히브리어 성경을 대체했다. 하지만 주석과 번역의 이런 형식적 구분은 그들 사이의 본질적 연속성을 가리지 못한다. 주석과 번역은 모두 원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논문 저자는 다양한 예를 통해 번역이 가지는 주석적 특징들을 논한다.

번역이 주석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타르쿰이다. 타르쿰은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고대 유대인의 해설을 반영한 아람어 번역 성경이다. 예를 들어, 에스더 6장 12절은 모르드개에 가두 행차를 진행한

하만이 분한 마음에 “애곡하며 머리를 감싸며 집으로 서둘러갔다”고 기록하는데, 이 구절에 대한 타르굼 번역은 하만이 애곡한 이유를 조금 다르게 설명한다. “하만이 그의 딸을 애통해 하며 … 집으로 갔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하만의 애곡이 자신의 처지 때문인 것으로 묘사되지만, 타르굼에 따르면 하만은 자기 딸의 죽음을 애곡했다. 이런 차이는 이 상황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에 기인한다. 유대인들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이끌고 성내를 행차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만의 딸이 떨어져 죽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 해석이 타르굼 번역에 반영된 것이다. 한편, 현대 주석가들이 주석에 사역을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그의 주석이 본질상 자신의 사역을 변증하는 글이라는 점도 번역과 주석의 연결 관계를 보여준다.

8장에서 막달레나 테테르(Magdalena Teter, 웨슬리대학교)는 몽골어 성경의 번역사를 약술한 후, 영국선교사회(Longdon Missionary Society)에서 1838년에 출판한 몽골어 오경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테테르는 성경이 몽골어 같이 이질적인 문화의 언어로 번역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것을 당시 번역가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서술한다. 테테르에 따르면, 몽골에 없는 식물이나 직명, 물건 등을 번역할 때 번역가들은 해설적으로 번역하거나(קמנוין, 시나몬 → amatatai durasu, 맛있는 나무껍질) 영어 번역을 음역하거나(נביא, 선지자 → propid, 프로피드), 혹은 오해를 감수하면서 직역(אוריים ותומים, 우림과 둠땀 → gerel-üd kiged ün-en-üd, 빛들과 진리들)에 의존하기도 했다. 기독교 신학이 몽골어 성경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다양한 구약의 제사 용어들 중 “번제”만을 제대로 번역하고, 화목제, 요제, 곡제, 관제 등의 제사들은 “그 외의 제사들”로 번역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는 몽골에 유사한 제사 개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제사가 그리스도에 의해 폐지되었다는 기독교 신학이 영향을 주었다. 논문의 결말에서 저자는 몽골어 번역이 출판된 약 20여 년의 기간 동안 몽골에서 기독교 개종자가 2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며 번역 사업의 성공을 의심하는데, 번역의 성공 여부와 개종자의 수를 연결시킨 것은 의아스러운 점으로 남는다.

9장에서 데어드레 뎀프시(Deirdre Dempsey, 마르케트 대학교)는 미국 가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인 New American Bible이 2000년대 초반에 개정판을 준비한 이유들을 다양한 예들로 설명한다. 개정판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성서학의 발전이다. 초판이 출판된 1970년 이래 약 30년간 중요한 주석 시리즈들(앵커바이블, 헤르메니아)이 출판되었다. NAB 개정역은 바로 이런 학문적 발전을 번역에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아모스 1장 1절의 ‘로 아쉬벤누’(לא אשיבנו, 그 벌을 돌이지 아니하리니)를 바레(M. Barré)의 연구

를 인용하여 “나는 그것(에돔)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로 번역한다. 또한, 개정판은 양성 평등의 취지를 반영해 보다 포괄적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신명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번역 노트에서 가톨릭 교리에 대한 변증적 내용을 대폭 삭제함으로 제2바티칸 회의 이후 강조된 종파 간 화합의 정신을 반영하려 했다.

제2부의 마지막 논문인 10장에서 트렘퍼 롱맨(Tremper Longman III, 웨스트몬트 대학교)은 복음주의 전통에서 시도된 성경 번역의 특징을 정확성(Accuracy)과 가독성(Readability)이라는 두 원리의 갈등으로 분석한다. 먼저, 롱맨은 번역이 중립적인 작업이 아니라면서 번역자의 신학적 편견이 본문 해석과 번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롱맨에 따르면 복음주의 번역 성경들은 두 가지 신학적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가 성경 무오 교리다. 무오 교리를 믿는 독자들은 자신들의 성경이 원문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런 정확한 번역은 대체로 문자적 번역을 의미했다. 대표적인 예가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다. NAS의 번역가들은 원문의 어순까지 영어 문장 속에 반영하려 했다. 복음주의 번역 성경의 두 번째 신학적 전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사명이다. 즉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이 복음주의 번역 사업의 배경이 된다. Tyndale Bible을 필두로 많은 복음주의 성경들이 영어 번역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를 소원했다. 문제는 이런 소원이 번역의 첫 번째 전제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이해되려면 가독성이 높은 번역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번역이 원문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요구와 충돌할 수 있다.

롱맨은 이런 충돌의 예를 몇 가지 사례로 설명한다. 1960-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Living Bible은 가독성에 중점을 둔 번역 성경이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운문을 번역할 때 평행법적 수사를 무시하고, 그 의미를 한 줄의 산문으로 줄여 번역했다. 하지만 성서학의 발전으로 평행법이 반복의 수사가 아니라 발전의 수사(“A what’s more B”)임이 밝혀지자 LB의 개정판을 통해 평행법적 수사를 되살리는 방안이 논의 되었다. 운문에 사용된 은유어의 번역에 있어서도 원문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욕구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번역을 만들려는 욕구가 충돌하였다. 이런 충돌은 은유가 고대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반영한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다.⁵⁾ 양성 포괄적인 언어의 문제도 정확성과 가독성 사이의 충돌이 노골화 되는 주제다. 1997년에 기획된 New International Version 개정의 핵심이 신명을 제외한 나머지

5) NLT의 전 12:3-5의 번역을 참고하라(173쪽).

경우에 있어 양성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개정 사업은 ‘포커스 온 더 패밀리’(Focus on the Family)라는 거대 복음주의 조직을 이끄는 돕슨(J. Dobson)에 의해 무산된다. 그는 히브리어에 대한 직역이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히브리어 남성 대명사를 양성 포괄적으로 번역하는 일에 반대했다. 이 때문에 NIV에 대한 개정작업은 중도에 좌초되었다. 저자는 이런 충돌들이 상충된 신학적 전제들에서 유래한 것이라 분석한다.

4. 제3부 교실 속 성경: 모사적 번역과 문예적 접근

마지막 3부에 포함된 세 편의 논문은 성경의 문예적 특징들을 설명하는 수업에 사용하기 좋은 번역 성경이 무엇일까를 탐구한다. 11장에서 게리 렌즈버그(Gary Rendsburg, 코넬 대학교)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구약 성경의 문학적 기법을 이해시키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말한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성경은 유대인출판협회에서 출판된 성경(The New Jewish Publication Society translation, NJPS)인데, 이 번역 성경만으로는 성경 저자가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들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고난도의 문학적 기법(의도적 문법 파괴, 다양한 동사의 태)은 말할 것도 없고 간단한 핵심어도 번역 성경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의도적으로 문자적 번역을 채택한 폭스(E. Fox)의 번역에도 적용된다. 결론에서 논문 저자는 불가피하게 NJPS를 교과서로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사역을 담은 핸드아웃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말한다. 12장에 수록된 폴 라아베(Paul R. Raabe, 콘코르디아신학교)의 논문은 여러 측면에서 이전 장의 내용과 겹친다. 렌즈버그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번역 성경이 히브리어의 문학적 수사를 드러내는 데 매우 부족하다고 불평한 후 다양한 본문들로 예증한다. 그는 원문을 쉬운 영어(facile translation)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그는 영어 번역이 원문보다 이해하기 어려워도, 원문보다 읽기 쉬워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라아베는 교실용 성경으로 특정 번역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마지막 13장은 위스콘신대학교의 마이클 폭스(Michael V. Fox)의 논문이다. 그는 지금은 좌초된 ‘시카고 바이블 번역 사업’(Chicago Bible Translation Project)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교실용 번역 성경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CBT는 성경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교수-학생 공동

체를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번역을 통해 원문상의 문학적 기법들을 인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번역을 폭스는 “모사적 번역(Mimetic translation)”이라 명한다. 폭스에 따르면 모사적 번역은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문자적 번역과 대동소이하지만, 후자가 가지는 신학적 전제(성경 무오)를 제거한 용어다. 폭스가 말하는 모사적 번역의 제1원칙은 원문 단어의 의미 범위(semantic range)와 최대한 일치하는 번역어를 문맥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동음이의어에 대해서는 같은 번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소리의 모사보다 의미적 모사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폭스가 제안하는 또 하나의 원칙은 번역에서 성경과 현대의 문화적 간극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원문에 가부장적인 편견이 있다면 양성 포괄적인 번역으로 그것을 완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폭스는 “모사적 번역은 번역자들이 대상 독자들에게 친절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매끄러운 영어 번역을 주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문이 가지는 낯설음과 어려움을 독자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219쪽)라고 말한다. 모사적 번역에 대해 폭스가 제안하는 마지막 원리는 원문이 가지는 의미적 모호함을 그대로 번역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욥기 19장 26 절의 마지막 문장 ‘우미브사리 에헤제 엘로아흐’(וּמִבְּשָׂרִי אֵהְיֶה אֱלֹהִים)가 보통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로 번역되는 것에 대해, 폭스는 “이 번역의 의미는 알겠다. 하지만 원문의 의미는 여전히 모르겠다”(220쪽)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라면 “내 육체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번역하겠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원문 ‘미브사리’(מִבְּשָׂרִי, 내 육체로부터)는 욥이 육체 속에 여전히 있을 때로, 혹은 욥이 육체를 떠난 때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느 것인지를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번역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시카고 바이블 번역 사업은 중간에 좌초되어 출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살핀 바처럼 크노블로흐(Federick W. Knobloch)가 편집한 <맥락 속 성경 번역>(Biblical Translation in Context)은 성경 번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열 세 명의 학자들의 글을 통해 심층 논의하고 있다. 학문적 깊이와 실용적 가치를 동시에 갖춘 논문집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독자들은 13편의 논문을 통해 번역이 언제나 특정 시대의 특정 공동체의 필요

에 봉사하도록 기획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성경 번역들은 때때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특정 공동체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번역은 의미를 발굴하는 고고학이 아니라 본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학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부버와 로젠츠바이크의 번역이나 폭스가 시도한 모사적 번역도 이 사실의 예외는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성경 번역은 좋은 전제 위에서 좋은 비전 가운데 기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 준다.

<주제어>(Keywords)

성경 번역, 문맥, 칠십인역, 타르굼, 유대인 번역,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bible translation, Septuagint, Targum, jewish translation, German bible, English bible.

(투고 일자: 2022년 5월 5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10월 13일)

<참고문헌>(References)

“Biblical Translation In Context”, <http://orion.msc.huji.ac.il/orion/archives/1998a/msg00300.html> (2022. 1. 27.).

Knobloch, F. W., ed., *Biblical Translation in Context*, Studies and Texts in Jewish History and Culture 10, Bethesda: University of Maryland Press, 2002.

<Abstract>

**Book Review - *Biblical Translation in Context*
(Frederick W. Knobloch, ed.,
Studies and Texts in Jewish History and Culture 10,
Bethesda: University of Maryland Press, 2002)**

Koowon Kim
(Dankook University)

This article is an extended review on Frederick W. Knobloch, ed., *Biblical Translation in Context*. Studies and Texts in Jewish History and Culture 10 (Bethesda: University of Maryland Press, 2002). The book under review consists of thirteen essays that were originally delivered on the conference, Biblical Translation in Context, held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USA in 1998. Contributors were actively involved in various translation projects such as the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the New American Bible revision, the Chicago Bible Translation, the New Living Translation, the New Century Version, and so forth. Although the essays in the book vary in their subject matters, they all have in common the commitment to examining the nature and practice of Bible translation. Readers will understand that Bible translators are no neutral and scientific mediums, but all translators work out of their theological, denominational, political, cultural ‘prejudices.’ This is intimated by the fact that Bible translations have been planned and executed along particular confessional and denominational lines, be it Jewish, Catholic, Protestant, or Evangelical. Reading the Bible in translation is, one may say, nothing other than reading translators’ interpretation of the Bible. The thirteen essays in this book will help us to appreciate various influences that went into the making of Greek, Aramaic, German, Mongolian, and English Bibles.

This book is divided into three parts. Part 1 “Precedent: The Bible in the Ancient World” contains two essays on the first ever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the Septuagint. Part 2 “Scripture and Community: Jewish Bibles, Christian Bibles” constitutes the meat of the book: the eight essays contained therein deal with individual translation projects in the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Although the contributors all try to shed light on the ways in which

prejudices of Bible translators influence the work of translating the Bible, Gillman takes the matter into another level: the two German Bibles discussed in Gillman's article (Chapter 5) show that Bible translators may incorporate their visions for a religious community into their versions of the Bible. Mendelssohn, for instance, used his German Bible to take Yiddish speaking Jewish-Germans out of their ghetto life into the high German culture in early 18th century whereas Buber and Rosenzweig used their version of the Bible to restore the spirituality in their Jewish community of the early 20th century. Finally, Part 3 "The Bible in the Classroom: Mimetic Translation and the Literary Approach" consists of three essays on bible translation designed specifically for an academic setting. Three scholars share their experience as a Bible teacher in a university or seminary setting, and propose various translations that may help students to appreciate the literary artifice crafted in the Biblical literature.